

# 정보격차 연구 동향 분석

—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와의 비교 —

##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vide Research Trends

- Comparative Analysis of LIS Fields and Other Social Science Fields -

이 성 신(Seongsin Lee)\*

강 보 라(Bora Kang)\*\*

이 세 나(Sena Lee)\*\*\*

### < 목 차 >

I. 서론	2. 분석방법
II. 선행연구	V. 분석결과
III. 정보격차란?	1. 빈도분석
IV. 연구 설계	2. 키워드 네트워크
1. 분석대상	VI.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 동향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2000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정보소의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과 최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소외계층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정보격차,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문헌정보학, 일반 사회과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of LIS fields and other social science fields through the analysis of author keyword network of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using NetMiner4 software. The author keyword was collected from KCI data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igital divide studies were focused on information services provision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 by the public libraries in LIS fields. However, the studies of other social science fields were focu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ciety and a new phenomenon of digital divide in the smart era, 2) compared with the other social science fields, there were a few researches about the old among the underprivileged, 3) there was little interest in other types of libraries except public libraries in LIS fields, 4) there is a need to study new types of digital divide in the smart era by LIS scholars.

Keywords: Digital divide, Network analysis,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Other social science.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eess@knu.ac.kr) (주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생(brkang88@daum.net)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생(dreammor@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8월 19일 •최초심사: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9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39-166,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139]

## I. 서론

정보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해결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자 자산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 안다는 것을 넘어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졌다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그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자원이 되며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심화된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기술결정론, 후기산업사회론, 정보통신 접근론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산성의 증대, 노동시간의 감소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긍정적, 낙관적 시각이다. 반면 문화중속론과 사회구조론 등의 시각은 정보화 사회가 정보 불평등 및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대변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근저에 있는 것은 정보 불평등 즉 정보격차의 심화에 대한 우려이다.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1998년 7월 미국 상무부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제 4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서형준, 명승환 2016, 152). 정보격차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인 Gary Andrew Poole의 Schoolnet Programs라는 기사에서 부터라는 견해(서형준, 명승환 2016, 153)와 1996년 동일인의 기고문 “A New Gulf in American Education, the Digital Divide”라는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됐다는 견해(윤혜영 2017, 79)등이 있다. 그러나 Gunkel(2003)은 최초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보격차라는 용어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격차는 최근의 스마트환경으로의 전환과 함께 정보취약 계층에게 있어서는 그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의제이다.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Tichenor 등이 제기한 ‘지식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로 알려져 있다(조용완 2007, 170)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2001년 1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 후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이명진, 박기태 2009). 정보격차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문헌

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도서관법」 제 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 43조에서는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며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맞물려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분야를 제외한 여타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의 경향성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와 여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관련 연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무엇인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가 일반 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는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격차 관련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주제의 발견 역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이하에서는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격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 장의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최근 5년 이내 연구로 한정한다.

우선 강미희, 김정현(2014)은 1974년부터 2013년 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1,365편의 논문을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자 소속 지역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연구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경영’, ‘자료조직’, ‘장서관리’,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 등의 순으로 논문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은경 등(2015)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927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분석, 저자 키워드 분석, 지적구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타 학술지와 비교하여 어느 특정 주제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가장 적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방법과 사례조사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워드로는 ‘공공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정보학관련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낮은 것으로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나타났다. 또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전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값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라, 김희섭(2017)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에 수록된 디지털 도서관 관련 논문 272편의 영문 저자키워드 578개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cademic Library’, ‘Reference Service’, ‘Public Library’, ‘E Resource’, ‘E Book’, ‘National Library’, ‘Web Site’, ‘Collection Development’ 등이 상위 주제 분야로 나타났으며 ‘Academic Library’, ‘Reference Service’, ‘Information Behavior’, ‘E Resource’, ‘Public Library’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cademic Library’, ‘Metadata’, ‘Information Behavior’, ‘E Resource’, ‘Librarian’ 등의 연구주제가 확장성이 높은 주제로 분석되었다.

이혜영(2017)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공공도서관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참고봉사’와 ‘도서관운영’이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였으며 조사 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이었다. 서울,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피조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단독연구가 공동연구 보다 많았다.

김관준(2015)은 문헌정보학분야의 국외 데이터베이스(LISTA)에서 1914년부터 2014년까지 독서 및 독서교육 관련 논문 2,115편을 대상으로 지적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국외의 독서 및 독서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관련 주제가 양적, 질적 성장과 더불어 세분화 및 확장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연구 분야가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관련 주제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분화 및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외의 독서 및 독서교육 분야에 있어서 향후 중점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하진, 송민(2014)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정보관리학회지』와 국외 JASIST에 수록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하여 명사, 명사구 동시출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덧붙여 5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정보학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경우 ‘도서관’, ‘정보 서비스’, ‘정보 이용자’ 분야가 많이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으며 국외의 경우는 ‘정보 검색’, ‘정보 이용자’, ‘웹 관련 분야’, ‘계량 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연구 주제로는 국내의 경우 도서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웹 혹은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 소셜, 웹 관련 분야와 더불어 계량정보학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최형욱 등(2018)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국문 저자 키워드 2,831개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시계열 분석 역시 진행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의 지적 구조 및 연구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 영역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유미, 박옥남(2019)은 장서개발관리 분야의 핵심 연구주제와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간을 5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4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 장서개발관리 분야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를 NetMiner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픈 액세스’, ‘기관 레포지터리’, ‘학술지’ 등이 장서개발관리 분야의 핵심 연구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신(2016)은 국내외 도서관마케팅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4대 학술지와 국외 Scopus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마케팅 분야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마케팅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국외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소수학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온라인 등을 활용한 도서관마케팅 연구가 다수 있었다. 국내외 모두 학교도서관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이용재, 김정덕(2014)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의 4대 학술지에 수록된 359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경영관련 논문들을 세부영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경영 연구주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경영의 세부 영역으로는 ‘경영일반’, ‘측정과 평가’, ‘인사관리’, ‘건축과 시설관리’,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순으로 연구물의 수가 많게 나타났다.

백재은(2018)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서치료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2016년까지의 학술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논문, 용어활용, 학문분야 및 연구방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독서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독서치료 개념의 도입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문의 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치료’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서요법’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양국 모두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기초연구와 사례연구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 Ⅲ. 정보격차란?

OECD<sup>1)</sup>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의

1) “The term "digital divide" refers to the gap between individuals, households, businesses and geographic areas at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with regard to both their opportunities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to their use of the Internet for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출처: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정, 사업장 및 지역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의 정의는 정보격차가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접근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9)<sup>2)</sup>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접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보다는 기술적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명진, 박기태(2009)는 정보격차는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형학적, 인종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격차에 주목하여 정보격차를 이해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의는 주목할 만하다. 서이중(2000)은 정보격차를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부자(information-rich)와 정보빈자(information-poor)간의 사회적 격차로 이해하면서 정보접근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용완(2007)은 정보격차란 “다양한 형태의 정보 및 정보매체 접근환경과 정보활용능력, 정보 마인드 등을 갖춘 개인 또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173)라고 하였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제 2조에서는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동 법률은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정부와 정부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의 소유와 접근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조용완 2007, 172).

이와 같이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조정문(2001, 2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정보격차 유형

정보격차의 여러 측면	정보격차의 종류
주체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민간과 공공간, 장애인과 일반인간, 국가간
대상물	아날로그 정보 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 일상생활정보 격차와 업무 관련 정보격차
심화정도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매커니즘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컨텐츠)격차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2)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divide between those with access to new technologies and those without” <<https://www.ntia.doc.gov/legacy/ntiahome/fttn99/FTTN.pdf>> (cited 2019. 7. 31)

민영(2011)은 정보격차의 개념이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초기에는 기술적 요소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로 정보격차가 설명되었다면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된 시기에는 정보접근의 질적인 측면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격차를 이해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가 양적인 측면의 강조에서 질적인 측면의 강조로 초점이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접근성, 활용성, 참여를 정보격차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적 요소 및 기기에 대한 접근 능력, 가능성으로 이해하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활용능력 측면으로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격차(gap)’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개인간, 집단간, 지역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사회, 경제적 수준, 문화적 요인, 인종적 특성 등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혹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격차 이슈는 정보 불평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이상의 정보격차의 정의 및 개념적 이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드러난 핵심 키워드들은 이후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IV. 연구 설계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국내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정보격차’, ‘디지털격차’, ‘디지털디바이드’, ‘information gap’, ‘digital divide’, ‘정보불평등’, ‘정보소외’, ‘정보빈곤’, ‘정보취약’ 등의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들 중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간된 논문이다. 검색된 논문들 중 문헌정보학분야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학회지들 중 기록학 분야의 학회지들이 선정된 이유는 해당 학회지들에 문헌정보학 관련 논문들이 출판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KCI의 논문검색 항목에서 주제 분류를 ‘사회과학’으로 지정하여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과학 분야로 검색된 결과 중 ‘법학’, ‘부동산 경제학’, ‘유아교육’, ‘조세’, ‘회계학’, ‘체육교육학’, ‘유아교육’, ‘수산해운해양경영’, ‘관광학’, ‘경찰행정’ 등과 같이 특수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본 연구의 주제인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일반적 관점이 아닌 특정한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주로 게재된 학술지의 논문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분석대상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은 <표 2>과 같이 123편이며 일반 사회과학 분야는 1347편이다. 이 중 10편 이상의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3>와 같다. 이들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저자 키워드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다.

<표 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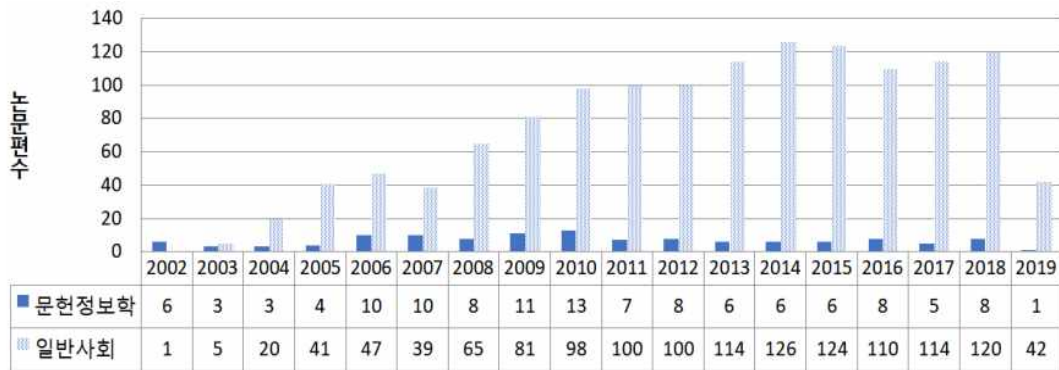
학술지명	편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
정보관리학회지	21
기록학연구	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
합계	123

<표 3> 일반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 편수

학술지명	편수
한국지역정보학회지	41
한국언론학보	31
정보화정책	29
대한경영학회지	21
사회과학연구	19
Information Systems Review	18
소비자학연구	18
중소기업연구	18
경영학연구	15
한국정책학회보	15
한국방송학보	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
산업경제연구	13
소비자문제연구	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그림 1>은 2000년도부터 2019년 사이의 연도별 논문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문헌정보학분야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간 동안 논문 편수가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2010년 이후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출간된 논문 편수가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년 11월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 정보격차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과 오히려 정보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관점이 양립하며, 정보격차와 관련한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성욱준 2014).



〈그림 1〉 연도별 논문추이

## 2. 분석방법

정보격차 관련 학술논문의 저자 키워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저자 키워드를 수집한다.

둘째, 수집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표준화한다.

1) 검색어로 사용한 ‘정보격차’, ‘디지털격차’, ‘디지털디바이드’, ‘information gap’, ‘digital divide’, ‘정보불평등’, ‘정보소외’, ‘정보빈곤’, ‘정보취약’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축약어와 전체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경우 축약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SNS’와 ‘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등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 ‘SNS’를 채택한다. ‘ICT’와 ‘정보통신기술’은 ‘ICT’를 채택한다.

3) 동일한 의미로 쓰인 유사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통일한다.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정보화사회’는 ‘정보사회’로 통일하며, ‘정보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은 ‘정보소외계층’으로 통일한다.

4) 특정지명이나 고유명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충남’,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NetMiner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된 키워드들을 분석한다. 이때 빈도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등의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분야의 정보격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한다.

## V. 분석결과

### 1. 빈도분석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수집된 123건의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총 404개이다. 이 중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공공도서관’이 40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정보소외계층’ 12회, ‘정보서비스’ 10회, ‘정보행태’ 9회, ‘도서관서비스’ 8회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수집된 1,347건의 논문에서 추출된 키워드는 총 3,915개이며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표 5>와 같다. ‘정보’가 65회로 가장 많았고, ‘ICT’ 33회, ‘장애인’ 31회, ‘네트워크’ 30회, ‘정보화’ 29회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문헌정보학 분야의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1	공공도서관	40	15	행태	4	29	커뮤니티	3
2	정보소외계층	12	16	정보요구	4	30	북한이탈주민	3
3	정보서비스	10	17	사서	4	31	정보환경	3
4	정보행태	9	18	소수민족	4	32	국가도서관	3
5	도서관서비스	8	19	시각장애인	4	33	청소년	3
6	정보	8	20	정책	4	34	평생교육	3
7	정보활용능력	7	21	노인	4	35	서비스	3
8	장애인	7	22	정보복지	3	36	저소득층	3
9	이용자	6	23	인증	3	37	이용	3
10	장애인서비스	6	24	서비스 품질	3	38	학교도서관	3
11	소외계층	6	25	체계	3	39	대학도서관	3
12	평가	5	26	정보공유	3	40	격차해소	3
13	정보활용교육	5	27	다문화사회	3			
14	연구	4	28	디지털 리터러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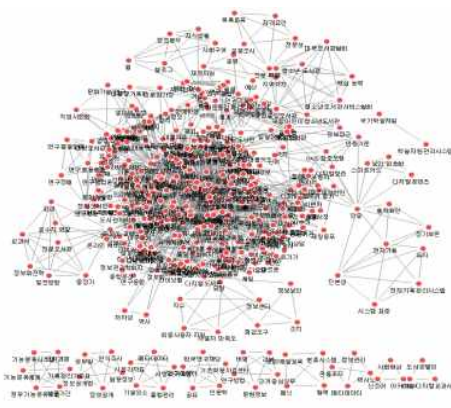
<표 5>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10회이상 출현 키워드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1	정보	65	11	정보화마을	16	21	정보화교육	12
2	ICT	33	12	다문화가정	15	22	소비자	11
3	장애인	31	13	정보사회	15	23	참여	11
4	네트워크	30	14	정보접근	14	24	정보리터러시	11
5	정보화	29	15	개인정보	13	25	IT	11
6	정보활동	28	16	전자정부	13	26	개인정보보호	10
7	노인	27	17	정보활용	13	27	질적 연구	10
8	평가	25	18	소셜 미디어	12	28	4차 산업혁명	10
9	스마트기기	22	19	거버넌스	12			
10	디지털 리터러시	19	20	정보서비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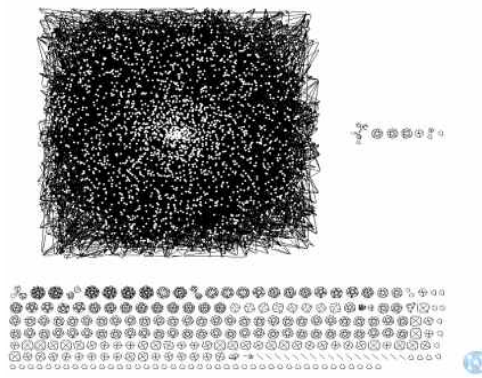
정보격차 연구의 구체적 특성은 이후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2.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1>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이며 404개의 노드와 1,495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2>는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이며, 3,915개의 노드와 12,233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2>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는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 중 동시출현 빈도가 2회 이상(상위 10%)으로 제한하여 <그림 3>와 같이 키워드 네

트위크를 표현하였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5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상위 5%)들 중 동시출현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그림 4>와 같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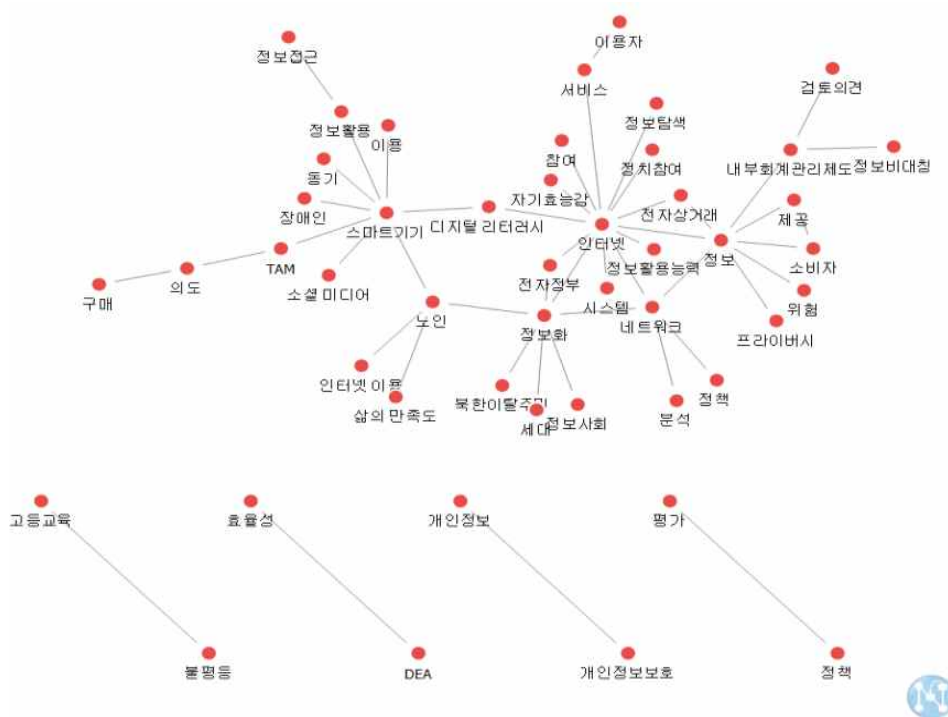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집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정보행태’ 등의 연결구조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활용교육’, ‘평생교육’, ‘시각장애인’, ‘노인’, ‘다문화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정보소외 계층’ 등의 연결구조가 나타났으며, 이 두 구조는 ‘정보서비스’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 문헌정보학 분야의 2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소수민족 집단,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을 소외계층 특히 정보소외 계층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정보격차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정보활용 교육 및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4>와 같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이용’, ‘장애인’, ‘소셜미디어’, ‘노인’, ‘정보활용’ 등의 연결구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정보’, ‘정보활용 능력’, ‘전자정부’, ‘참여’ 등의 연결구조가 있으며, ‘디지털리터러시’로 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림 4> 일반사회과학 분야의 5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어느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며 정보활용능력의 부족으로 전자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정보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는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 중 상위 15개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문헌정보학 분야가 다양한 정보소의 계층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 사회과학 분야는 정보소의 계층 중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6>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빈도

번호	문헌정보학			일반사회과학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공공도서관	정보소의계층	7	정보활동	노인	7
2	장애인	공공도서관	5	정보	소비자	6
3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5	생활만족도	노인	6
4	공공도서관	정책	4	정보화	정보사회	4
5	정보행태	소수민족	4	정보접근	정보활용	4
6	정보행태	정보요구	4	정보활용	스마트기기	4
7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3	정보리터러시	장애인	4
8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3	장애인	웹 접근성	4
9	정보서비스	정보소의계층	3	ICT	디지털 리터러시	3
10	정보소의계층	도서관서비스	3	ICT	장애인	3
11	소의계층	정보행태	3	정보화	정보활동	3
12	소의계층	북한이탈주민	3	정보화	네트워크	3
13	정보행태	정보환경	3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교육	3
14	정보행태	정보추구	3	스마트기기	노인	3
15	장애인	정보	2	정보활동	정보화교육	3

<표 7>과 <표 8>은 최단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연결 값이 4~9일 때 작은 세상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라 칭하며, 평균 연결거리가 적을수록 작은 세상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수상 2012).

<표 7> 문헌정보학분야의 최단거리

MEASURES	VALUE		
	GEODESIC DISTANCE	# OF REACHABLE NODES (OUT)	# OF REACHABLE NODES (IN)
MEAN	2.49	9.47	9.47
STD.DEV.	1.153	10.85	10.85
MIN.	1	0	0
MAX.	6	25	25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평균거리는 2.49로 최대 3노드만 건너면 모두 연계가 가능하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거리는 4.37로 작은 세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최단거리

MEASURES	VALUE		
	GEODESIC DISTANCE	# OF REACHABLE NODES (OUT)	# OF REACHABLE NODES (IN)
MEAN	4.37	25.78	25.78
STD.DEV.	1.893	30.88	30.88
MIN.	1	0	0
MAX.	11	6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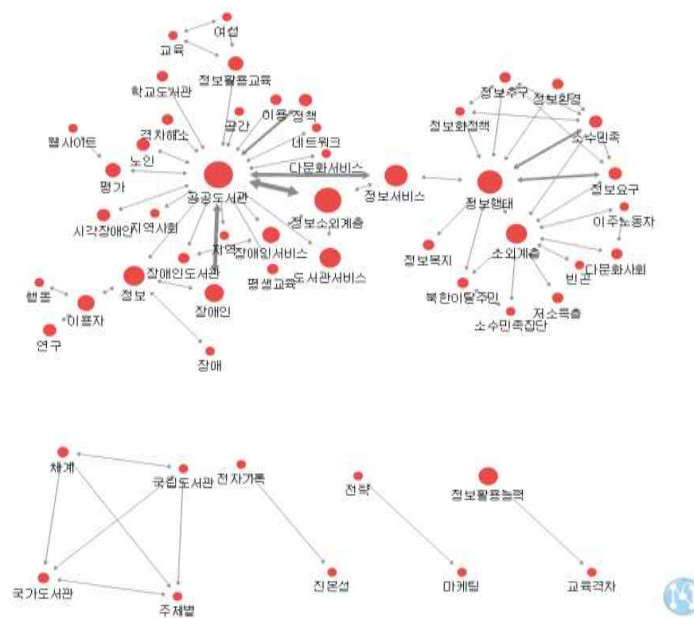
가. 연결 중심성 분석

어느 하나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된 키워드라는 것이다. <표 9>에서 나타나듯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정보행태’, ‘소외계층’, ‘소수민족’, ‘정보요구’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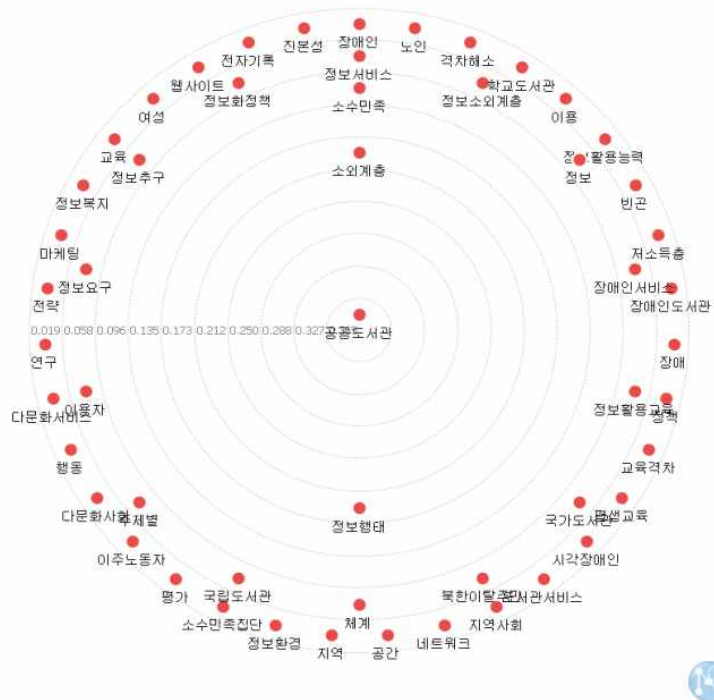
<표 9> 연결중심값

번호	문헌정보학		일반사회과학	
	키워드	Degree Centrality	키워드	Degree Centrality
1	공공도서관	0.236	정보	0.071
2	정보행태	0.101	정보화	0.071
3	소외계층	0.101	정보활동	0.058
4	소수민족	0.067	네트워크	0.051
5	정보요구	0.045	스마트기기	0.051
6	정보	0.045	장애인	0.045
7	정보소외계층	0.045	노인	0.038
8	정보화정책	0.034	ICT	0.038
9	이용자	0.034	평가	0.032
10	국립도서관	0.034	개인정보	0.026

연결 중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는 아래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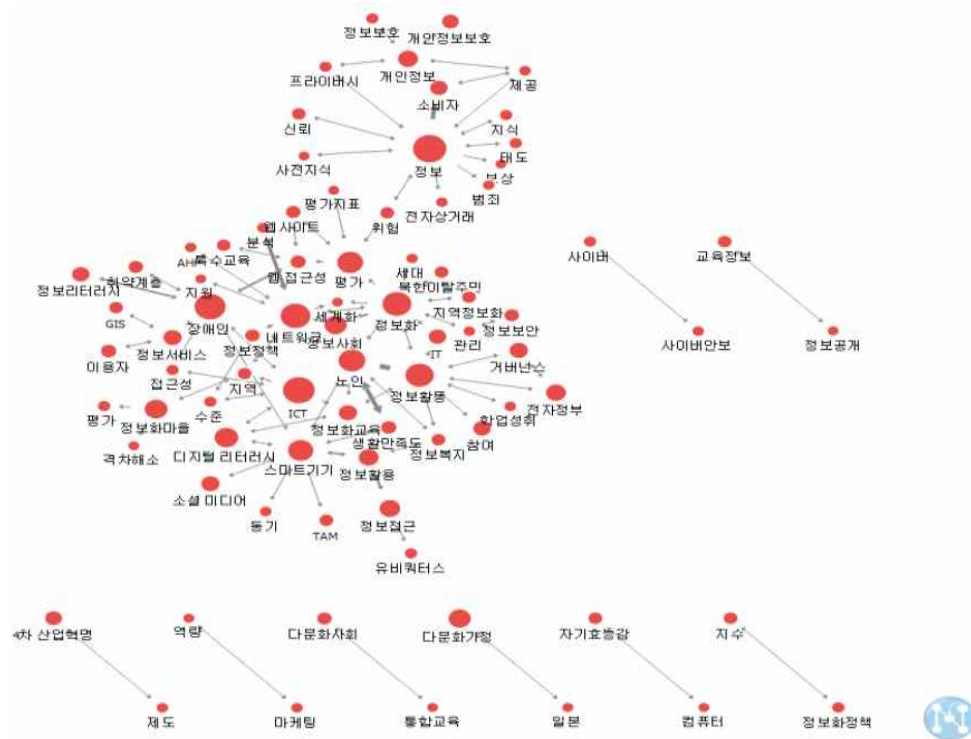
<그림 5> 문헌정보학 분야의 2회이상 출현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그림 6>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결 중심성 분석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보격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강화를 정책과제 중 하나로 천명했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그리고 정보소의 계층들의 정보요구 충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소수민족’키워드의 연결중심값이 높은 것은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연결중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 7>, <그림 8>와 같다.



<그림 7>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연결 중심 키워드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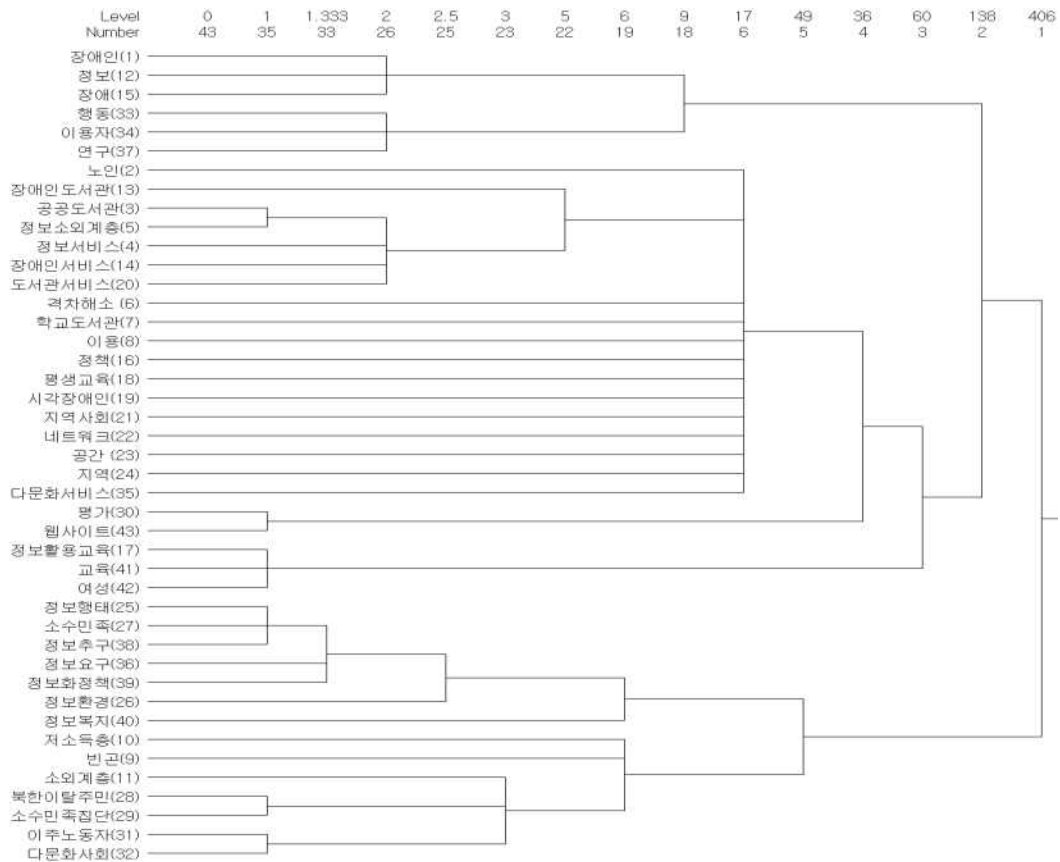






련하여 나타난 현상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한 여러 사회적 노력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혹은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되는지와 관련한 연구주제들로 정보격차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 중 ‘위험’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일정부분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사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즉 이러한 관점에 기반을 둔 정보격차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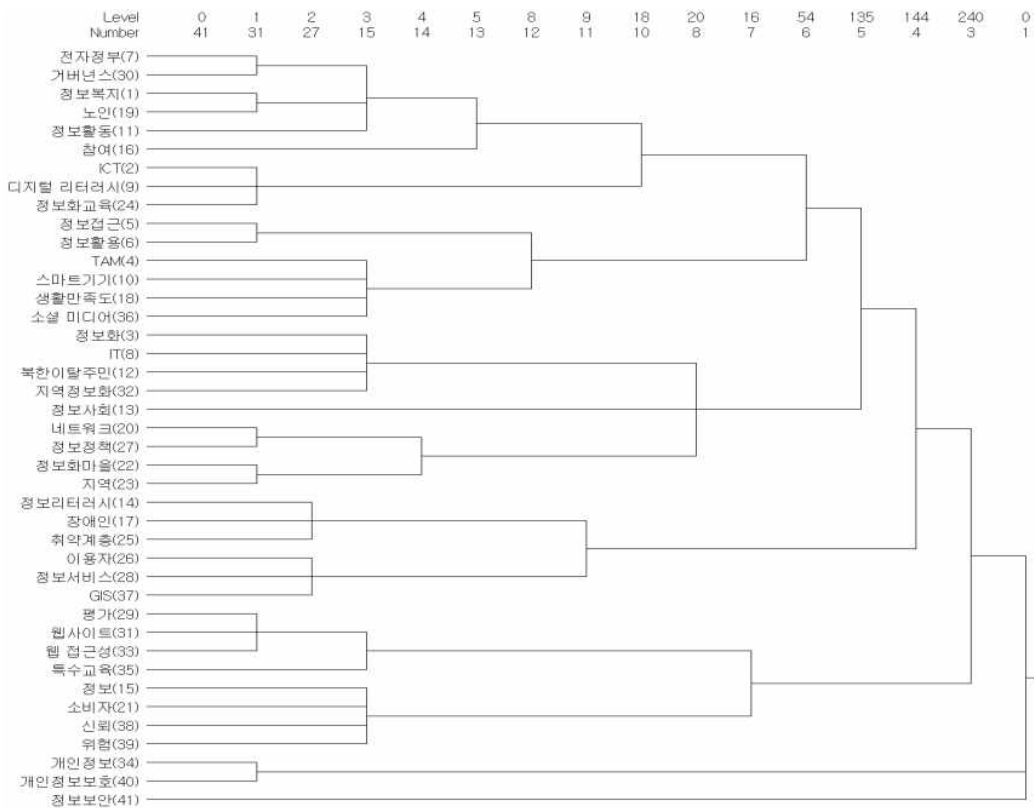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및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키워드들의 덴드로그램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11>, <그림 12>과 같다. 덴드로그램은 “상호 연계가 강한 두 쌍 사이의 짝을 맺어 주는 형태를 순차적으로 반복한” 것이다(최영출, 박수정 2011, 133).



<그림 11> 문헌정보학 분야의 덴드로그램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정보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등의 키워드가 주요한 쌍을 이루는 키워드들로 나타났으며, ‘격차해소’, ‘학교도서관’, ‘이용’, ‘정책’, ‘평생교육’, ‘시각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간’, ‘지역’, ‘다문화서비스’ 등이 또 다른 하나의 주요 쌍을 이루는 키워드들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상위권에 없었던 ‘학교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격차해소’, ‘이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지역’ 등의 키워드들과 주요 쌍을 이루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역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사회과학 분야 키워드들의 덴드로그램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덴드로그램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TAM’, ‘스마트기기’, ‘생활만족도’, ‘소셜 미디어’ 등의 키워드와 ‘정보화’, ‘IT’, ‘북한이탈주민’, ‘지역정보화’, 그리고 ‘정보’, ‘소비자’, ‘신뢰’, ‘위험’ 등의 키워드들이 주요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키워드들이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 동향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정보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정보행태’, ‘도서관서비스’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 ‘ICT’, ‘장애인’, ‘네트워크’, ‘정보화’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았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소수민족 집단,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을 소외계층 특히 정보소외 계층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정보격차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공공도서관이 정보활용 교육 및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 역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여부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기기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정보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정보행태’, ‘소외계층’, ‘소수민족’, ‘정보요구’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 ‘정보화’, ‘정보활동’, ‘네트워크’, ‘스마트기기’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화 혹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정보격차 연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라는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보격차와 관련한 논문들이 201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 ‘정보행태’, ‘정보서비스’, ‘소외계층’, ‘정보’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화’, ‘평가’, ‘정보’, ‘위험’, ‘장애인’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정보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연구가 주이며

이들 키워드가 정보격차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세부 연구주제들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확장성 역시 크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평가’라는 키워드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낮게 나타났으나 매개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라는 주제가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의 키워드는 ‘정보화’, ‘평가’, ‘정보’, ‘위험’, ‘장애인’이었다. ‘평가’는 연결중심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를 극복하고자 한 여러 사회적 노력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혹은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되는지와 관련한 연구주제들로 정보격차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 중 ‘위험’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일정부분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사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즉 이러한 관점에 기반을 둔 정보격차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정보격차와 관련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과 최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 분야는 장애인과 소수민족 등을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들로 인식한 반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 노인 이용자층은 현재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이용자층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상황에서 노인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는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텐드로그램 분석결과 ‘학교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격차해소’, ‘이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지역’ 등의 키워드들과 주요 쌍을 이루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스마트환경에서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화될 것인지 혹은 감소될 것인지 등과 같이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역시 새로운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 강보라, 김희섭. 2017. 국내 디지털 도서관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3): 49-66.
- 김구, 권용민. 2014. 정보격차 진단을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1): 79-114.
- 김관준. 2015. 국의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 김하진, 송민. 2014.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국내외 정보학 학회지 연구동향 파악. 『정보관리학회지』, 31(1): 99-118.
-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2:150-187.
- 백재은. 2018. 한국과 일본의 독서치료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5-26.
- 서이중. 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사회와 미디어』, 2: 68-87.
-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2015.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학회지와 비교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3.
- 서형준, 명승환. 2016.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4): 151-187.
- 서형준. 2014. 정보격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14(11): 657-666.
- 신유미, 박옥남. 2019. 장서개발관리 분야 최근 연구동향분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2): 105-131.
- 이명진, 박기태. 2009.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 16(3): 3-17.
- 이수상. 2014.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동향 분석: 우리나라와 국외연구의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83-402.
- 이용재, 김경덕. 2014.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5-50.
- 이호규. 2009. 정보격차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수준의 논의에서 개인 수준의 논의로. 『한국언론학보』, 53(6): 5-25.
- 이혜영. 2017. 국내에서의 공공도서관 연구동향: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7-43.

- 윤혜영. 2017.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77-105.
- 조용완. 2007. 국내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진상기. 2013. 한국 정보격차의 시계열 변화 분석: 정보격차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3): 161-188.
- 조정문. 2001.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 및 해소 정책. 『정보과학회지』, 19(9): 26-36.
- 성옥준. 2014. 스마트시대의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53-75.
-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문헌정보학 분야의 지적구조 및 연구 동향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 35(2): 89-114.
-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Guntel, David J. 2003. "Second Thoughts: Toward a Critique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5(4): 499-502.
-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4719>> [cited 2019. 7. 3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ae Eun. 2018.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5-26.
- Cho, Cheung Moon. 2001. "Understanding and Policies for the Digital Divide."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9(9): 26-36.
- Choi, Hyung Wook, Choi, Ye-Jin and Nam, So-Yeon.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rend Chang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3 to 201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2): 89-114.
-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

- Choi, Young-Chul and Park, Soo-Jung. 2011. "A Study for Research Area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Network Text Analysi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1): 123-139.
- Jin, Sang-Ki. 2013. "Korean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Analysis: Focused on Digital Divide Indicator."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6(3): 161-188.
- Kang, Bora and Kim, Heesop. 2017. "An Analysis of the Digital Library Research Trend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19-66.
- Kang, Mi-Hee and Kim, Jeong-Hyen.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 Kim, Gu and Kwon, Young-Min. 2014. "A Study on Digital Divide Evaluation Model and Digital Divide Indicato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4(1): 79-114.
- Kim, Ha Jin and Song, M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Domestic/International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by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99-118.
- Kim, Pan 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 Lee, Hokyuu. 2009. "A Critical of Digital Divide Discussions: From Group Level to Individual Level."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3(6): 5-25.
- Lee, HeyYoung. 2017. "Research Trends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7-43.
- Lee, Myoungjin and Park, Kitae. 2009. "The Issue Change of Digital Divide Studies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16(3): 3-17.
- Lee, Seongsin. 2016. "A Study on the Library Marketing Research Trend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83-402.
- Lee, Soo-Sang.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 Lee, Soo-Sang. 2014.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Lee, Yong Jae and Kim, Kyoung Doc. 2014. "A Study on Trend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2004–20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5–50.
- Min, Young. 2011. "The Digital Divide among Internet Users: An Analysis of Digital Access, Literacy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2: 150–187.
- Seo, Eun–Gyoung, Lee, Won–Kyung, Park, Eun–Kyung and Lee, Ock–Seong. 2015. "Infor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315–343.
- Seo, Hyungjun and Myeong, Senghwan. 2016.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Divide Stud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9(4): 151–187.
- Seo, Hyungjun. 2014. "Critical Discussion for Digital Divide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1): 657–666.
- Shin, You Mi and Park, Ok Nam. 2016.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2): 105–131.
- Suh, Yi Jung. 2000. "Structuralization and Becoming Social Issues of Digital Divide." *Information Society & Media*, 2: 68–87.
- Sung, Wookjoon. 2014. "A Study o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in the Smart Societ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5(2): 53–75.
- Yoon, Hye–Young. 2017. "A Study on Considerations of the Library Policy Establishment to Resolve Digital Divide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77–105.